2021년 02월 03일 I Equity Research

이랜텍 (054210)

지금 사야되는 3가지 이유 = 2차전지, 신재생, 전자담배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2,000원으로 상향

이랜텍에 대해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12,000원으로 상향한다. 목표주가 상향 근거는 11월 리포트 발간 후 신규사업(E-모빌리티 인도 공장 가동, 신규 고객사 확보, 해외수주 등)의 진척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2차전지 배터리팩, 휴대폰케이스 관련 업체 평균 PER 12배 적용). 또한 기업 실적에 반영되는 시점은 2분기로 예상한다. 2021년도 매출액 추정치는 신규사업 실적을 반영하지 않은 보수적인 숫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주가수준은 절대적 저평가 국면으로 판단된다. 향후 기대되는 사업방향은 전자담배의 해외수출 여부, ESS 배터리팩 매출 발생 (해외수출 향), E-모빌리티 인도 공장 추가 증설 여부이다. 이랜텍은 휴대폰 케이스 및 소형 배터리팩 중심에서 중대형 배터리팩 제조 회사로 변화라는 시점에 서있다. 이에 따라 이랜텍은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시점이 다가오고 있으며, 적극적인 매수구간으로 판단한다.

지금 사야되는 3가지 이유

① 2차전지 배터리팩 사업의 본격화: 이랜택은 국내 배터리 셀업체 L사와 인도 시장내 E-bike용 배터리팩 납품이 시작된다(일본 H사향 글로벌 1위). 또한 순매출 인식으로 400억원 ~ 500억원 CAPA로 시작될 전망이다. 실적 반영은 2분기부터로 예상된다(이익률 두자리 예상). 국내 L사의 인도 지역 내 사업방향에 따라 추가적인 모멘텀이 발생할 전망이다. 추가적인 라인 증설은 2021년 4분기 ~ 2022년 1분기 중으로 예상한다. ② 신재생 ESS배터리팩 사업의 해외수주 확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신재생 투자에 맞춰 ESS배터리팩 수주 규모도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S사를 통해 2020년 3월부터 양산을 시작하였다. 추가적인 거래선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유럽과 북미 지역향 수출 규모 확대를 예상해본다. ③ 국내를 넘어 해외수출을 기대하는 전자담배: 이랜텍은 국내 주요 전자담배 업체를 통해 2020년 9월부터 납품하기 시작했다. 2021년 상반기 중 해외수출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을 기다려 보자.

Update

BU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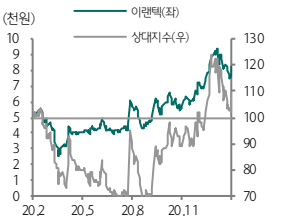
I TP(12M): 12,000원(상향) I CP(2월02일): 8,24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963.81
52주 최고/최저(원)	9,420/2,480
시가총액(십억원)	198.9
시가총액비중(%)	0.05
발행주식수(천주)	24,134.2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153,177.2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8.6
20년 배당금(예상,원)	100
20년 배당수익률(예상,%)	1.11
외국인지분율(%)	1.12
주요주주 지분율(%)	
이세용 외 11 인	35.50
정호원	5.91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8.4)	36.7	70.1
상대	(8.0)	15.6	13.4

Consensus Data	2020	2021
매출액(십억원)	628.2	809.7
영업이익(십억원)	15.9	39.9
순이익(십억원)	0.1	24.1
EPS(원)	4	999
BPS(원)	6,902	7,797

Stock Price



Financial Data

투자지표	단위	2018	2019	2020F	2021F	2022F
매출액	십억원	451.8	729.0	628.2	756.5	945.2
영업이익	십억원	1.3	36.3	14.1	39.9	55.3
세전이익	십억원	(11.0)	24.7	7.5	34.2	50.4
순이익	십억원	(10.9)	12.1	4.8	25.6	37.8
EPS	원	(531)	571	211	1,062	1,567
증감율	%	적지	흑전	(63.05)	403.32	47.55
PER	배	(6.47)	9.70	42.65	7.13	4.83
PBR	배	0.50	0.74	1.29	0.96	0.81
EV/EBITDA	배	9.50	3.85	8.48	4.19	2.99
ROE	%	(7.39)	7.92	2.92	14.34	18.16
BPS	원	6,884	7,484	6,954	7,892	9,360
DPS	원	0	100	100	100	100

Analyst 김두현
02-3771-8542
doohyun@hanafn.com

하나금융투자

Analyst 김두현 02-3771-8542

인도 지역 내 E-bike 시장 고성장, 지역별 정책에 따라 추가적인 모멘텀 전망

첫번째 이유

→인도 E-bike 시장 연평균 52% 고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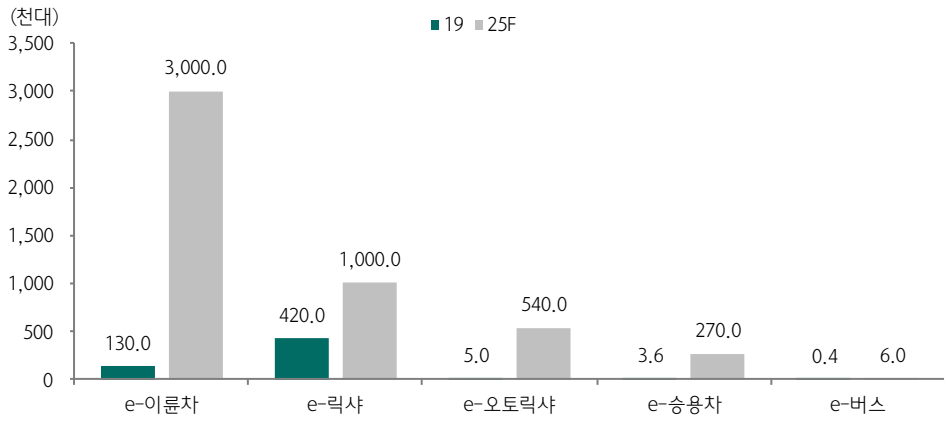
인도 E-bike 시장의 폭발적 성장이 예상된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e바이크 시장 규모는 2019년 3,600만달러에서 2025년 3억 9,650만달러로 연평균 52% 이상의 고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는 2011년부터 E-모빌리티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2015년 시행한 E-모빌리티 채택 촉진 및 제조를 장려하기 위한 단계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단계 시행 후 2019년 2단계로 확장되고 있다. 2단계 주요내용은 자국내 제조 촉진 및 E-바이크 및 전기 이륜차의 채택 장려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랜텍의 경우 인도내 공장 보유 및 글로벌 1위 E-바이크 업체(일본H사)를 고객사로 확보하여 인도향 배터리팩 매출의 급성장이 예상되는 바이다. 이랜택은 국내 배터리셀 업체 L사와 3월부터 H사향 배터리팩 납품이 시작된다. 순매출 인식으로 400억원 ~ 500억원 CAPA로 시작된다. 실적 반영은 2분기부터로 예상된다(이익률 두 자리 예상). 국내 L사의 인도 지역 내 사업방향에 따라 추가적인 모멘텀이 발생할 전망이다. 추가 라인 증설은 2021년 4분기 ~ 2022년 1분기 중으로 예상한다.

표 1. 인도 내 주요 지역별 전기차 관련 정책

연번	지역명	승인 시기	세부정책
1	비하르(Bihar)	2019년 6월(발의)	· 2022년까지 모든 사이클 릭샤(Paddle Rickshaw)를 e-릭샤로 전환 · e-릭샤 생산 촉진방안 마련 · 고속도로, 주거 밀집지, 상업지역 등에 전기차 고속 충전소 설립
2	구자라트(Gujarat)	2019년 9월(발의)	· 2022년까지 전기자동차 10만대 운용(스쿠터 및 이륜차 8만대 등) · 등록세 전면 감면 및 일부 세제 혜택 · 전기차 충전소 전기세 전면 감면 · 지방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3	뉴델리(New Delhi)	2020년 8월	· 2024년까지 전기차의 총 등록 차량에 대한 점유율 25%까지 상승 · 연내 버스의 50% e-버스로 전환 · 특정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구매자의 대해 인센티브 제공 · 구형 이륜차 폐차 시 인센티브 제공 · e-릭샤, 전기차 등 구매 시 약 400달러(3만루피)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
4	펀잡(Punjab)	2019년 11월(발의)	· 5년간 연간 전기차 등록 수 25% 달성 · 정책 발효 기간 내 전기 이륜차, e-택시의 매출 점유율 25%로 상승 · 개인·상용 전기차에 대해 각자 상이한 세제 혜택 제공
5	타밀나두(Tamil Nadu)	2019년 9월	· 2030년까지 연간 5% 이상의 버스를 전기차 전환 목표 · 6개 주요 도시 내 오토 릭샤를 10년 내 전면 e-릭샤 전환 목표 · 산업 유관 스타트업에 제정 지원 · 2025년까지 모든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 전기세 전면 면제

자료: National Research Development Corporation, 하나금융투자

그림 1. 인도 전기차(EV) 시장 분야별 전망



자료: 현지 언론 보도(Economic Times), KOTRA, 하나금융투자

두번째 이유

→ESS 배터리팩의 훈풍이 다가오고 있다

미국 조 바이든 당선으로 ESS 배터리팩 수요 증가 전망

이랜텍은 중대형 ESS배터리팩 수주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 조 바이든 당선인의 친환경 정책에 기인한다.

1) 전기차 충전소 50만대 ESS 수요

우선 미래형 자동차 산업 선점은 미국산 친환경자동차 생산 · 사용을 정부 조달을 통해 300만대를 촉진하는 것인데 이에 따른 전기차 충전소 50만개 구축 인프라에 따른 ESS 수요가 촉진될 것이다.

2) 친환경 건물 및 주택으로 가정용 ESS 수요 필연적

또한 건축분야 혁신으로 4년간 400만개 건물과 200만개 주택을 친환경으로 전환 및 친환경 공공주택을 150만개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에 미국 정부의 에너지복지(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지원 프로그램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저소득 가정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해주는 복지이다. 현재 트럼프 정부 기간 중 WAP의 책정된 금액을 확인해보면 2019년 $254,000,000, 2020년 $305,000,000, 2021년 $0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의거해 최소 2020년 금액 혹은 그 이상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가정용 ESS의 수요도 동반 증가가 필연적이라고 판단된다.

3) 5만장 태양광 패널 설치(=ESS), 캘리포니아주 신축 주택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

시장조사 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북미 ESS 시장이 약 1조 9,542억원에서 2023년에는 약 4조 9,815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바이든의 5만장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태양광과 가정용 ESS 시장이 먼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정부도 신축 주택의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가정용 ESS의 수요도 동반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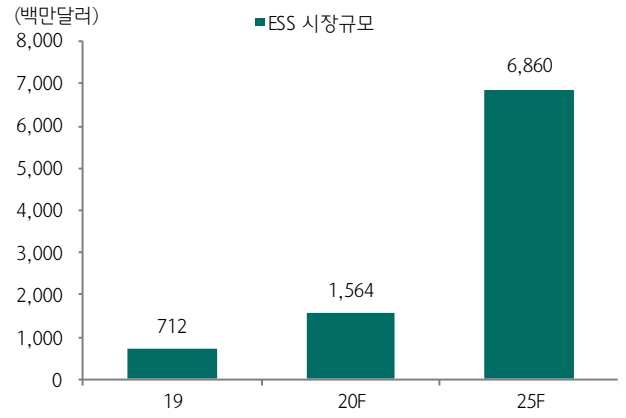
4) 5년간 연간 7GW씩 설치, 2025년 총 69억달러 ESS 시장 전망

리서치 기관인 우드 매켄지(Wood Mackenzie)는 2020년 1분기 미국 내 ESS는 95.7MW, 2020년 총 설치 규모는 1.2GW, 시장규모 약 16억달러, 그리고 향후 5년간 연간 7GW씩 추가 설치되어 2025년에는 총 69억달러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ESS 시장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만큼 조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 집중 육성에 따라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형 배터리팩 → 중대형 배터리팩으로 전환, 고객사 확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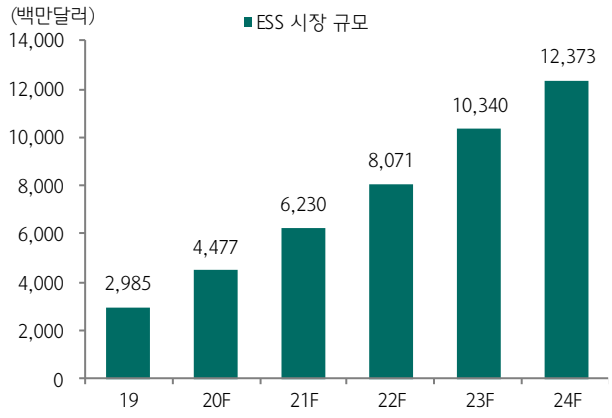
이랜텍은 소형 배터리팩에서 중대형 배터리팩으로의 전환을 2018년부터 시작하였다. 국내 S사를 통한 레퍼런스 확보 및 2020년 3월부터 양산 라인을 가동하면서 고객사를 확대해나갈 전망이다. 현재 추가적인 거래선 확대를 진행중이며 북미 및 유럽향 ESS 신규 수주가 임박한 상황으로 예상된다.

그림 2. 미국 ESS 시장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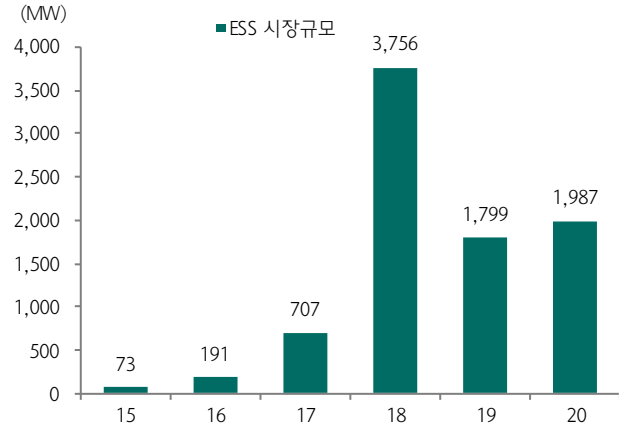
자료: Wood Mackenzie, 하나금융투자

그림 3. 글로벌 ESS 시장 규모 추이



자료: SNE리서치, 하나금융투자

그림 4. 국내 ESS 시장 규모



주: 2020년은 7월까지
자료: 한국전기안전공사, 하나금융투자

그림 5. 이랜텍 가정용 ESS

자료: 이랜텍, 하나금융투자

그림 6. 이랜텍 Portable ESS

자료: 이랜텍, 하나금융투자

그림 7. 태양광 연계 가정용 ESS 개념

자료: 언론보도, 하나금융투자

경쟁업체 선례를 기반해, 이랜텍도 외형성장과 수익성이 기대된다.

세번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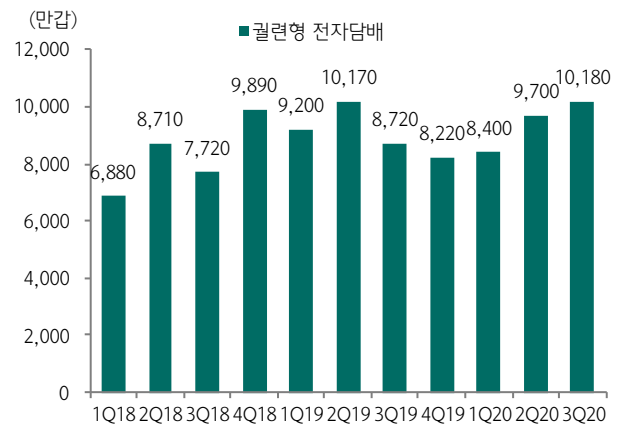
→전자담배 수출 기대감 충분히 가져도 될 시점

이랜텍은 국내 주요 전자담배 업체를 통해 2020년 9월부터 납품하기 시작했다. 이는 궐련형 전자담배 ODM 사업으로 지난 9월부터 제품 판매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신사업을 통한 매출 다각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1년 상반기 중 해외수출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기대되는 만큼 외형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내는 2020년 3분기까지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2억 8천만갑(+0.7%, YoY)으로 전년동기대비 다소 주춤했다. 다만, 2020년 3분기 판매량 추이를 보면 1억 180만갑(+16.0%, YoY)으로 최대 분기 판매량을 달성하였다. 이는 2020년 7월 FDA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위험저감 담배제품으로 인가하면서 판매량이 다시 반등했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실내 생활 및 재택 근무가 잦아지면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수요가 증가했다고 판단된다.

해외 수출 부문은 경쟁 업체의 선례를 보면 이랜텍의 성장을 전망할 수 있다. 경쟁 업체는 2020년 3분기 해외 시장 진입을 시작으로 2021년은 궐련형 전자담배 및 부속품 매출 확대에 따라 외형성장과 더불어 수익성 개선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다. 또한 경쟁업체는 초기 해외 수출로 2020년 3분기 약 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만큼 이랜텍 또한 글로벌 시장 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외형성장과 수익성을 동시에 기대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그림 8.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하나금융투자

그림 9. 이랜텍 전자담배 ODM

자료: 이랜텍, 하나금융투자

Analyst 김두현 02-3771-8542

ESS배터리팩 및 E-모빌리티 매출 본격화에도 현재 주가수준은 PER 7배

2021년 PER 7배로 사업부문별 업체 평균 대비 절대적 저평가 국면

이랜텍의 2021년 실적은 매출액 7,565억원(YoY, +20.4%), 영업이익 399억원(YoY, +183.0%)으로 전망한다. 이랜텍은 지난 2019년 케이스 매출 호조로 매출액 7,290억원과 영업이익 363억원이라는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2021년에는 ①화웨이 중저가 브랜드 아너 매각에 따른 반사 수혜, S사의 글라스틱 → 플라스틱 케이스 대체로 물량 증가, ②2차전지 배터리팩이 e-모빌리티 외에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 ③전자담배의 견조한 매출 성장으로 2019년을 상회하는 실적 시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현 주가 수준은 배터리팩 업체 평균(9배), 휴대폰 케이스 업체 평균(14배), 2차전지 BMS 및 케이스업체 평균(13배)대비 절대적으로 저평가인 국면으로 확실한 매수구간으로 판단한다.

표 2. 실적 추정

(단위: 십억원)

	2018	2019	2020F	2021F	2022F
매출액	**451.8**	**729.0**	**628.2**	**756.5**	**945.2**
YoY(%)	*(22.9)*	*61.4*	*(13.8)*	*20.4*	*24.9*
Battery Pack	110.8	146.2	160.9	106.2	152.7
Case	225.3	416.5	317.3	357.5	371.2
충전기	61.5	81.8	55.6	60.5	81.1
기타	54.2	84.6	94.5	232.3	340.2
영업이익	**1.3**	**36.3**	**14.1**	**39.9**	**55.3**
OPM(%)	*0.3*	*5.0*	*2.2*	*5.3*	*5.9*
(지배)순이익	**(10.9)**	**12.1**	**4.8**	**25.6**	**37.8**
NPM(%)	*(2.4)*	*1.7*	*0.8*	*3.4*	*4.0*

자료: 이랜텍, 하나금융투자

Analyst 김두현 02-3771-8542

추정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단위:십억원)

	2018	2019	2020F	2021F	2022F
매출액	**451.8**	**729.0**	**628.2**	**756.5**	**945.2**
매출원가	410.5	646.4	574.2	666.7	825.6
매출총이익	41.3	82.6	54.0	89.8	119.6
판관비	40.1	46.3	39.9	49.9	64.3
영업이익	**1.3**	**36.3**	**14.1**	**39.9**	**55.3**
금융손익	(6.9)	(3.0)	(6.6)	(5.7)	(4.9)
종속/관계기업손익	0.0	0.0	0.0	0.0	0.0
기타영업외손익	(5.3)	(8.6)	0.0	0.0	0.0
세전이익	**(11.0)**	**24.7**	**7.5**	**34.2**	**50.4**
법인세	(1.1)	9.0	2.7	8.5	12.6
계속사업이익	(9.9)	15.6	4.8	25.6	37.8
중단사업이익	(0.9)	(3.5)	0.0	0.0	0.0
당기순이익	**(10.9)**	**12.1**	**4.8**	**25.6**	**37.8**
비지배주주지분 순이익	0.0	0.0	0.0	0.0	0.0
지배주주순이익	**(10.9)**	**12.1**	**4.8**	**25.6**	**37.8**
지배주주지분포괄이익	(11.3)	14.6	4.8	25.6	37.8
NOPAT	1.1	23.0	9.1	29.9	41.5
EBITDA	21.2	59.3	34.1	57.3	70.4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22.86)	61.35	(13.83)	20.42	24.94
NOPAT증가율	흑전	1,990.91	(60.43)	228.57	38.80
EBITDA증가율	(6.19)	179.72	(42.50)	68.04	22.86
영업이익증가율	(76.36)	2,692.31	(61.16)	182.98	38.60
(지배주주)순익증가율	적지	흑전	(60.33)	433.33	47.66
EPS증가율	적지	흑전	(63.05)	403.32	47.55
수익성(%)					
매출총이익률	9.14	11.33	8.60	11.87	12.65
EBITDA이익률	4.69	8.13	5.43	7.57	7.45
영업이익률	0.29	4.98	2.24	5.27	5.85
계속사업이익률	(2.19)	2.14	0.76	3.38	4.00

대차대조표

(단위:십억원)

	2018	2019	2020F	2021F	2022F
유동자산	**230.6**	**224.8**	**233.1**	**288.1**	**359.9**
금융자산	44.4	60.3	91.2	117.5	146.8
현금성자산	28.7	41.6	75.1	98.1	122.6
매출채권	73.3	75.0	64.6	77.8	97.2
재고자산	84.5	61.7	53.2	64.1	80.1
기타유동자산	28.4	27.8	24.1	28.7	35.8
비유동자산	**188.3**	**195.6**	**174.7**	**158.5**	**145.1**
투자자산	12.8	14.1	13.2	14.4	16.1
금융자산	9.1	7.8	7.8	7.8	7.9
유형자산	152.2	162.4	142.9	126.0	111.3
무형자산	**7.3**	**7.4**	**6.8**	**6.3**	**5.9**
기타비유동자산	**16.0**	**11.7**	**11.8**	**11.8**	**11.8**
자산총계	**418.9**	**420.5**	**407.8**	**446.6**	**505.0**
유동부채	**251.8**	**217.3**	**202.7**	**217.4**	**239.0**
금융부채	157.8	133.4	130.3	130.3	130.3
매입채무	75.4	74.6	64.3	77.4	96.7
기타유동부채	18.6	9.3	8.1	9.7	12.0
비유동부채	**26.1**	**38.6**	**37.9**	**38.8**	**40.1**
금융부채	**17.7**	**33.5**	**33.5**	**33.5**	**33.5**
기타비유동부채	8.4	5.1	4.4	5.3	6.6
부채총계	**277.9**	**255.9**	**240.6**	**256.2**	**279.1**
지배주주지분	**141.0**	**164.5**	**167.2**	**190.5**	**225.9**
자본금	**10.2**	**11.0**	**11.0**	**11.0**	**11.0**
자본잉여금	51.7	60.5	60.5	60.5	60.5
자본조정	0.0	0.0	0.0	0.0	0.0
기타포괄이익누계액	(12.9)	(12.9)	(12.9)	(12.9)	(12.9)
이익잉여금	91.9	105.9	108.5	131.8	167.2
비지배주주지분	**0.0**	**0.0**	**0.0**	**0.0**	**0.0**
자본총계	**141.0**	**164.5**	**167.2**	**190.5**	**225.9**
순금융부채	131.2	106.5	72.6	46.3	16.9

투자지표

	2018	2019	2020F	2021F	2022F
주당지표(원)					
EPS	(531)	571	211	1,062	1,567
BPS	6,884	7,484	6,954	7,892	9,360
CFPS	1,137	3,189	1,485	2,372	2,918
EBITDAPS	1,036	2,797	1,485	2,372	2,918
SPS	22,063	34,383	27,390	31,347	39,164
DPS	0	100	100	100	100
주가지표(배)					
PER	(6.47)	9.70	42.65	7.13	4.83
PBR	0.50	0.74	1.29	0.96	0.81
PCFR	3.02	1.74	6.06	3.19	2.59
EV/EBITDA	9.50	3.85	8.48	4.19	2.99
PSR	0.16	0.16	0.33	0.24	0.19
재무비율(%)					
ROE	(7.39)	7.92	2.92	14.34	18.16
ROA	(2.58)	2.88	1.17	6.00	7.95
ROIC	0.44	8.98	3.78	13.44	18.56
부채비율	197.14	155.55	143.93	134.51	123.55
순부채비율	93.04	64.74	43.41	24.31	7.50
이자보상배율(배)	0.16	4.05	1.63	4.65	6.46

현금흐름표

(단위: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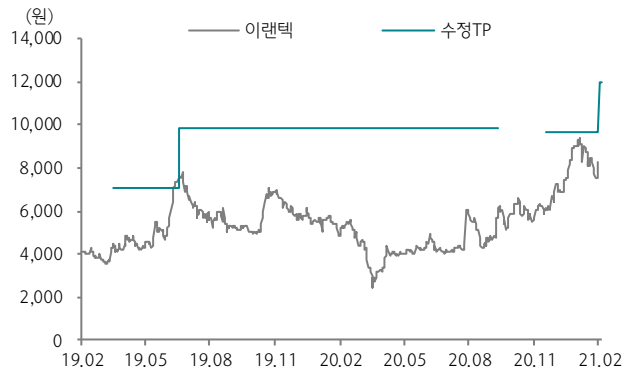
	2018	2019	2020F	2021F	2022F
영업활동 현금흐름	**(0.4)**	**47.1**	**35.2**	**29.9**	**33.6**
당기순이익	(10.9)	12.1	4.8	25.6	37.8
조정	3	5	2	2	2
감가상각비	20.0	23.0	20.0	17.4	15.1
외환거래손익	(1.6)	0.2	0.0	0.0	0.0
지분법손익	(0.9)	(0.2)	0.0	0.0	0.0
기타	(14.5)	(18.0)	(18.0)	(15.4)	(13.1)
영업활동 자산부채 변동	(16.2)	(11.6)	10.3	(13.2)	(19.3)
투자활동 현금흐름	**(10.1)**	**(19.6)**	**3.5**	**(4.5)**	**(6.6)**
투자자산감소(증가)	17.6	(1.4)	0.9	(1.2)	(1.7)
자본증가(감소)	(25.6)	(16.2)	0.0	0.0	0.0
기타	(2.1)	(2.0)	2.6	(3.3)	(4.9)
재무활동 현금흐름	**0.0**	**(14.7)**	**(5.3)**	**(2.4)**	**(2.4)**
금융부채증가(감소)	1.0	(8.7)	(3.1)	0.0	0.0
자본증가(감소)	0.0	9.6	0.0	0.0	0.0
기타재무활동	(1.0)	(15.6)	0.0	0.0	0.0
배당지급	0.0	0.0	(2.2)	(2.4)	(2.4)
현금의 증감	**(9.6)**	**12.9**	**33.4**	**23.0**	**24.5**
Unlevered CFO	23.3	67.6	34.1	57.3	70.4
Free Cash Flow	(58.6)	26.0	35.2	29.9	33.6

자료: 하나금융투자

Analyst 김두현 02-3771-8542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이랜텍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1.2.3	BUY	12,000		
20.11.19	BUY	9,700	-19.85%	-2.89%
20.9.15	Not Rated	-	-	-
20.6.20	1 년 경과		-	-
19.6.20	BUY	9,810	-46.77%	-20.49%
19.3.19	BUY	7,080	-29.88%	6.50%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매도)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2.13%	7.87%	0.00%	100%

* 기준일: 2021년 01월 31일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두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1년 2월 3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두현)는 2021년 2월 3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